

젊음의 열정과 배움의 향기가 있는 PPCWC 노인여성대학

글 부평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산업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으며 노후설계 및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94년 현재 노인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이 52.3%로 70년대 초의 7.0%에 비하여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노인 중 41.0%는 자녀가 있음에도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의 이농 현상 심화로 65.8%의 노인이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건강악화에 따르는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은 58.9%,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노인은 조사 대상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사회의 뒷자리에 서는 데서 오는 허무함 및 우울증 그리고 여가생활부분의 문제가 부각 되고 있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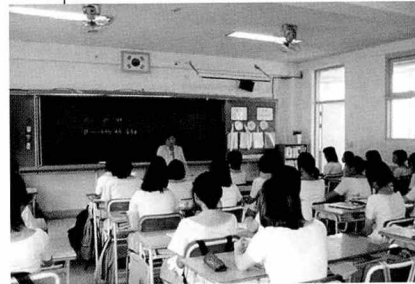


모든 계층 간 어르신들의 화합의 공간

우리 세대들은 편리한 시대에 길들여져 옛 세대와의 다른 가치관 확립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의 생활습관, 형식을 버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어르신들은 가치관 혼돈에 빠져있다. 젊은 세대로의 사회역할전환은 어르신들이 설 자리를 빼앗아 상실감마저 더해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와 땀으로 지금 발전된 이 사회를 건설하였

던 지난날의 그분들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외면과 무관심으로 대했던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프로그램은 각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미흡함이 있기에 부평종합사회복지관 PPCWC 노인여성대학에서는 재산, 사회적





위치, 교육수준, 성별 등 모든 각기 다른 계층간이 적절하게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고자 노인여성대학을 설립하였다.

1999년 1월 1기 입학생을 맞은 이래 현재까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게 하며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노인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사업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250여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여성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자신감의 성취와 적극적·긍정적인 생활태도를 향상시킴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켰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1월과 6월 방학을 제외하고 강의와 소풍 등이 1년단위로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컴퓨터 교실, 영어교실, 건강강좌, 체육교실, 견학교실, 수학여행 등의 커리큘럼으로 지역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초중고등학교 방문해 지역사회안에서 교류

PPCWC 노인여성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사회안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타의 노인대학이 대학 내에서의 프로그램 만으로 운영되기 쉬우며 지역과 교류하기 쉽지 않은데 부평종합사회복지관 노인여성대학의 경우 커리큘럼 안에 견학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총 4년으로 구성되어있는 커리큘럼에서 1년 과정을 졸업하면 학사, 2년 과정을 졸업하면 석사, 3년 과정 박사, 마지막 과정인 4년을 졸업하면 강사자격증이 주어진다. 강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지관과 연계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강의내용은 현재 대학에서 배우고 있거나 강사가 정한 자유주제로 진행된다.

이처럼 노인여성대학은 복지관 혹은 대학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SW